

1. EXT. 버스정류장. 낮

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다.

승헌: (세민을 바라보며) 야, 나 여자 친구 생겼다.

세민: (승헌을 슬쩍 바라보다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) 여자친구? 예쁘냐?

승헌: 강. 완전. 내 이상형.

세민: 아 부러운 새끼. 난 언제 연애 하나.

그 때, 울리는 승헌의 전화 벨 소리. 승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발신자를 슬쩍 확인하고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누른다.

승헌: (활기찬 목소리로) 응 시은아 벌써 도착했어?

(세민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) 나 먼저 갈게.

돌아서는 승헌. 세민은 그런 승헌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.

세민: (고개를 들고 눈을 감으며) 아, 날씨 더럽게 좋네.

2. INT. 세민의 집. 저녁

가방을 뱉다 던지고는 바로 침대에 눕는 세민. 사탕을 문 채 핸드폰을 보고 있다. 세민이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광고 배너를 발견한다. '소원을 들어드려요' 흥미로워하며 자세를 고쳐 앉는 세민.

음성 : 소원을 이루어 드려요. 소원을 빌 건가요?

세민: (화면을 보며) 당연히 소원을 빌어야지.

'소원을 이야기해주세요'라는 음성이 흘러나온다.

세민: (고민하다 이내 장난스럽게) 여자.친.구

핸드폰 화면에는 '곧 전화가 걸려옵니다' 라는 문구가 써져 있고, 곧 세민의 벨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린다.

세민: (물고 있던 사탕막대를 내려놓으며) 여..여보세요?

음성: 안녕하세요.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면 1번,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.

세민: (1번 누른다) 네? 네 그럼요

음성: 감사합니다.

이내 뚝 끊어지는 전화. 세민은 한 동안 멍하게 전화기를 바라보다 머리를 몇 번 긁적이고는 잠을 청한다.

3. INT. 세민의 집. 아침

초인종 소리가 들려오고 세민은 두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연다. 문 앞에는 모르는 여성이 서 있다.

세민: (인상을 쓰며) 누구세요?

시은: (의아한 듯) 왜 그래?

시은은 발 한 쪽을 문 사이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.

시은: 아직도 자고 있었어? 나 목말라 물 줘

세민 : (당황했지만 이내 설레는 듯) 진짜 제 여자친구예요? (볼을 쿡쿡 찌러본다.)

시은 : 아 뭐하는거양~ 나 목마르다구

물을 마시고 있는 시은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세민.

세민: 야 승헌아. 너 잠깐 나올 수 있냐?

승헌: (짜증나는 목소리로) 지금? 갑자기 왜

세민: (조용한 목소리로) 아니, 강 닥치고 좀 나와 보라니까.

승헌: (졸린 듯 한 목소리로) 아씨. 짜증나게 대신 우리 집 앞으로 와.

세민은 전화를 끊고는 자연스럽게 무언가 행동을 하는 시은을 바라본다.

세민 : (머뭇거리며) 저기... 저 학원가야되는데...ㅇ요?

시은 : 근데?

세민 : 아니.. 저 그래서 나가봐야 하는데 안 나가실 거예요..?

시은 : 야, 내가 너희 집에 뭐라도 하니?

세민 :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예쁘신 분이 뭐 어떻게 할 것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
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 본 사이고 오늘 저는 아직 맘에 준비가 안 되었고.....

시은 : (말 자르며) 아씨 됐고, 무슨 물 한 잔 주고 나가라 그러냐 알았어 간다 간다~ 학원인지 뭐
시기 끝나고 전화해라~

멍하니 문을 콧 닫고 나가는 시은을 바라보는 세민. 하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세민은 아
차! 싶은 마음에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가보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후다.

세민 : 아씨... 번호 모르는데

4. EXT. 승헌의 집 앞 계단. 낮

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세민. 승헌이 라이터만 꺾다 꺾다를 반복하며 뒤에서 걸어 나온다.

승헌: (계단에 앉으며) 아, 용돈 남은 줄 알았는데 빵원이네. 야 너 담배 있냐?

세민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건네고 승헌은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인다.

승헌: 그래서 무슨 일인데

세민: 야 놀라지 말고 들어봐. 내가 어제 소원을 이뤄주는 어플? 뭐 어쨌든 그런 걸 발견했거든.
그래서 뭐 구라인거 같은데 강 여자친구를 갖고 싶다고 얘기했다? (흥분한 목소리로) 근데 시발
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깐 웬 모르는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.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? 근데
존나 이뻐.

승헌은 담배를 떨어트리고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쳐다본다.

승헌: (곰곰히 생각해보다) 야, 그 여자 혹시 키 크냐?

세민: 응? 음, 어. 키커.

승헌: 눈 존나 크고 앞머리 있고 약간 손예진 닮았고

세민: 헐 맞아. 너 뭐냐?

승헌: 야. 개 내 여친이야.

세민: 이걸 또 뭘 개소리야.

승헌: 나도 그 어플에서 만났다고 여자친구. 근데 지금 이게 뭘 옛 같은 상황이냐?

서로 얼굴을 멍하니 마주보는 둘. 마저 피던 담배를 발로 지지며 허탈하게 한숨쉬는 세민.

세민 : 아씨.. 날씨 더럽게 좋네

Black.

엔딩크레딧이 올라간다. 세민이는 침대에 누워서 여느 때처럼 핸드폰게임을 하고 있다. But, 갑자기 띵하고 핸드폰 알림이 울린다. 30만원이 출금되었다는 모바일 뱅킹 알림 문자. 세민이는 그 알림을 보고 5초간 멍을 때리다 침대를 뒹굴며 온갖 욕설을 한다.

영상이 끝나면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. Narr. 최근 신종

어플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. 이 어플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명분으로.....